

미래엔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vol.15

2017년 10월호

www.m-teacher.co.kr
edu.donga.com

자유학기제 현장들보기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는 오후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 개설되는 만큼 형태도 다양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할까’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숨겨진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 운영 사례를 소개합니다.

경북 영해중 ‘생(生)글 생(生)글, 살아 있는 국어 시간!’ “우리 고장 이야기 담은 책 만들며 애향심 키워요”



‘생(生)글 생(生)글, 살아 있는 국어 시간!’ 수업에서 책 속지와 표지 붙이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경북 영해중 학생. 영해중 제공

경북 영덕군 영해중의 자유학기 활동 중 주제선택 프로그램인 ‘생(生)글 생(生)글, 살아 있는 국어 시간!’의 ‘우리 고장 책 만들기’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둠별로 자신이 거주하는 고장에 대한 책을 만들어보며 글쓰기 실력을 기른다.

이 수업을 기획한 이미정 국어 교사는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책을 만드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정보 활용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의사소통 역량을 높였다. 이 교사의 수업은 ‘2017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에서 자유학기활동 부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수업은 블록타임으로 묶인 매주 수요일 5~7교시에 총 17차시로 진행됐으며 △수업 안내 및 수행 계획 세우기(2차시) △정보 수집 방법 습득 및 우리 고장 정보 수집하기(5차시) △책 쓰기(3차시) △책 디자인하기(2차시) △책 제본하기(4차시) △완성된 책 돌려 읽기(1차시)로 이뤄졌다.

우리 고장 매력 찾으며 정보 수집 능력 기른다

1~2차시는 ‘우리 고장 책 만들기’ 수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배우는 시간이다. 교사가 먼저 우리 고장에 다양한 매력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런 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임을 설명한다. 수업의 목적을 파악한 학생들은 고장의 △유적지 △특산물 △고장 출신 위인 등을 찾는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모둠별로 진행한다.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모둠은 각각 어떤 주제에 관한 책을 만들지를 정한다.

이 교사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고장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학생이 너무 많은데, 학생들의 애호심을 키워주기 위해 이 수업을 기획했다”면서 “1~2차시에서는 모둠별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자신도 몰랐던 고장의 매력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3~7차시에는 본격적으로 고장의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화한다. 3~7차시는 과학과 기술·가정 교과와의 융합수업으로 진행됐다. 지역 한옥마을을 방문해 한옥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를 개발해보는 식. 학생들은 과학 및 기술·가정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책 △지역 신문 △지역 홍보 팸플릿 등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보 수집 및 활용 역량을 기르게 된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다양한 창구를 통해 폭넓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면서 “과학과 기술·가정 교과와의 연계성을 통해 심화 지식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책에 들어갈 글 써보며 글쓰기 실력 ‘쑥’

8~10차시는 앞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책에 들어갈 글을 쓰는 시간. 학생 1명당 A4 1~2장 정도 분량의 글을 쓰는데, 모든 학생들이 글쓰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책 제작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 모둠 내에서 학생들은 각각 설명문·보고서·동화·광고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써본다.

이때 국어 교과서의 ‘표현하기’ ‘고쳐 쓰기’ 단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먼저 교과서를 통해 글쓰기 방법을 충분히 배운 뒤 글쓰기를 시작하는 것. 이 단계에서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사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 글쓰기 동기나 역량이 다소 낮은 학생들은 어떻게 글쓰기를 시작해야할지 몰라 방황하기 때문.

이 교사는 “평소 학생들의 글쓰기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글쓰기를 망설이는 학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한다”고 말했다.

초안이 완성되면 고쳐 쓰기를 한다. 먼저 글의 전체 구성상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문단·문장·단어 수준에서 고쳐 쓴 뒤, 마지막으로 맞춤법·띄어쓰기·문장 부호 등을 점검한다. 학생들은 글이 점차 나아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이 수업은 특정 차시에서 해당 활동과 관련된 직업을 소개하는 것이 특징. 8~10차시 수업은 ‘작가’ 또는 ‘편집자’라는 직업과 관련되어있다. 이 교사는 “진로관련 서적을 참고해 해당 활동이 어떤 직업과 관련되는지를 알려주면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모둠별로 책 제본하며 협동심 UP!

11~12차시는 책 디자인을 해보는 시간이다. 책의 속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자신의 글을 옮겨 적고 △색연필 △색종이 △사진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속지를 꾸민다. 나아가 이 활동이 ‘책 디자이너’ ‘삽화가’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도 배운다.

13~16차시에는 학생들이 직접 책을 제본한다. 13~16차시는 ‘전문가집단 모형’으로 진행된다. △속지 제본하기 △책 표지 만들기 △표지와 속지 붙이기 등의 각각의 제작 활동을 1~2명의 학생들이 각각 담당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책을 제작하는 것이다. 즉, 모둠원과의 협력을 통해 하나의 책을 완성해내는 것. 학생들은 자신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모듬의 책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책임감을 갖고 활동에 임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협력의 가치도 배우게 된다.

17차시는 완성된 책을 다함께 둘러보며 소감을 나누는 시간. 이 교사는 “학생들이 책 쓰기부터 책 제본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해내는 것이 이수업의 특징”이라면서 “자신이 완성한 책을 보며 학생들의 성취감과 자존감도 크게 높아진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교사가 말하는 자유학기제

앞서 소개된 자유학기제 활동을 직접 기획·지도한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자유학기 활동 운영 노하우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다.

이미정 경북 영해중 교사가 말하는 주제선택 활동

“책 쓰기부터 책 제본까지 스스로... 성취감 커져요”

‘생(生)글 생(生)글, 살아 있는 국어 시간!’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리 고장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우리 고장을 알리는 책 쓰기, 책 디자인하고 제본하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한 이미정 경북 영해중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책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는다”고 말했다.

‘생(生)글 생(生)글, 살아 있는 국어 시간!’ 수업을 이끈 이 교사로부터 수업 기획 과정과 운영 노하우에 대해 들었다.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Q 수업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본교 자유학기제 교사 동아리(응답하라! 예주의 후예)가 계기가 됐다. 동아리 교사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색다른 자유학기를 보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학교 맞은편에 있는 고려시대 문인 ‘목은 이색’의 탄생 마을인 ‘괴시 한옥 마을’을 수업에 활용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학교와 매우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목은 이색’이 누구인지 ‘괴시 한옥 마을’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괴시 한옥 마을’에서 좀 더 범위를 넓혀 영덕 지역의 △훌륭한 문인 △유서 깊은 유적지 △특산물 등을 수업에 두루 활용하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고향’에 대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리 고향의 매력을 알려주고 자부심도 일깨워주고 싶었다.



책 속지 꾸미기 활동중인 영해중 학생들(왼쪽)과 학생들이 직접 만든 책. 영해중 제공

Q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학생들이 스스로 글을 쓰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글쓰기에 흥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왜 글쓰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까를 고민하던 중, 학생들이 쓴 글을 읽어주는 ‘독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래서 ‘학교 선배’ ‘학교 선생님’ ‘다른 학교 친구들’ 등 구체적인 독자를 정해주었다. 학생들은 “정말 제 글이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소개되나요?”라고 물으며 신기해했고, 처음과 달리 적극적으로 글쓰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쓰기에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동화’나 ‘광고’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르를 소개해준기도 했다. 가령 영덕의 특산물인 시금치에 대한 글을 쓸 때 학생들은 시금치에 대한 설명문보다 동화를 쓰는 것을 더욱 즐거워한다. 실제로 한 학생은 ‘시금치를 먹고 변비를 고친 꼬마 이야기’를 동화로 만들었다.

Q 수업의 효과는?

수업 전후로 우리 고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소풍으로 대구 근대골목에 다녀왔는데, 문화해설사가 “근대골목은 대구 독립운동의 발상지”라고 소개하자 학생들이 오히려 문화해설사에게 “우리가 사는 영해에서도 독립운동을 했었어요” “신돌석 장군이라는 항일 의병장도 계세요”라고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완성된 한 편의 글쓰기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글쓰기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됐다.

학생들은 적게는 A4 용지 1매 분량, 많게는 A4 용지 2매 분량의 글을 작성하고 고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글쓰기 역량을 높였다.

▶이미정 경북 영해중 국어 교사



“교사의 수업지도 도움말 수업의 필요성과 목적을 분명히 전달하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려면?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독자를 명확하게 정해주어야 한다. 영덕과 영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고장을 알려주기 위해서 책을 쓰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안내하는 것이다. 실제로 완성된 책은 학교 도서관이나 지역 전시회 등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학교 도서관에 책을 전시할 경우 수업을 같이 들은 학생들끼리 접착 메모지에 피드백을 써서 책 표지에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독자의 반응을 눈으로 볼 수 있어 학생들이 더욱 흥미로워한다.

교사가 수업 활동 결과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고 공유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활동과정과 결과물이 여러 사람에게 소개된다는 생각에 더욱 적극적으로 책 제작에 참여한다. 친구들의 활동과정과 결과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협동심도 쌓는다.

책 제본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이 수업은 학생들이 쓴 글을 ‘양장제본’ 방법을 통해 책으로 만들기 때문에 제본 도구들이 많이 필요하다. 제본용 실과 바늘, 송곳, 접착제 등 기본적인 제본 도구들은 저렴한 편이나 그밖에 전문적인 제본 도구들은 다소 고가이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구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학생들에게 제본 기술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제본 기술을 정확하게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제본 관련 서적이나 인터넷 동영상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부족하다면 ‘북 바인딩’ ‘북 디자인’ 공방을 찾아가 직접 배워보는 것도 좋다.

제언

첫 시간에 수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왜 우리가 사는 고장에 대한 글을 쓰는지, 왜 책을 만드는지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면 학생들도 동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것이다.

이 수업은 모둠수업으로 진행되는데, 학생들의 글쓰기 수준을 고려하여 모둠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글쓰기에 능숙한 학생들만 한 모둠에 모이거나, 반대로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만 모이는 일이 없도록 각기 다른 글쓰기 수준을 가진 학생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교사가 지역 관련 책자를 많이 갖고 있어야 한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미리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지역과 관련된 △팸플릿 △소식지 △지역신문 등을 골고루 모아두어야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진다.